

엄마로 살아온 8년 영화로 풀어볼게요



6년전 실종된 아들 찾는 엄마 역
“오래 기다린만큼 가치있는 작품
가족과 보낸 시간이 자양분 됐다”



배우 이영애가 4일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보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이번 작품이 자신의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배우 이영애(48)가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14년 만이다. “20대와 30대 때는 배우로 온전히 나만 생각하고 지냈다”는 그는 “늦게 결혼해(38세) 40대엔 가족과 두 아이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2005년 ‘친절한 금자씨’ 이후 영화에 참여하기까지 오랜 공백이 생긴 이유다. 이영애는 스크린 복귀작인 ‘나를 찾아줘’(감독 이원근·제작 26컴퍼니)의 27일 개봉을 앞두고 4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극장에서 제작보고회를 열고 “자꾸 14년이라고 짊어주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도 “기다린 만큼, 오랜만에 내놓을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14년 만의 선택, ‘나를 찾아줘’인 이유는 ‘나를 찾아줘’는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는 엄마를 맡은 이영애가 홀로 낯선 마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영애는 공백 기간 여러 영화의 출연 제안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다”고 했다. “스릴러이지만 따뜻했고, 착하지만은 않은, 지리멸렬한 인간군상들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아이의 엄마가 되고나서 얻은 가치관도 영향을 미쳤다. 2009년 결혼한 그는 2011년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얻었다. 연기 공백은 그렇게 생겼다. “결혼하기 전에는 작품의 장르나 역할에 집중하고 욕심냈다”고 밝힌 이영애는 “엄마가 되고 보니 다양한 색깔의 영화가

나오면 좋겠고, 제가 참여한 영화나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영화를 선택해 집중하고 싶다는 각오다. ●‘가족은 나의 큰 자양분’ ‘나를 찾아줘’ 공개를 앞두고 이영애는 ‘최근 출연작인 ‘친절한 금자씨’와 줄곧 비교의 시선을 받는다. 두 작품 모두 아이를 잃은 엄마 역할이기 때문이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그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엄마의 감정을 상상해 연기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체험하고 느낀 엄마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다. “가족과 보낸 시간이 큰 자양분이 됐

고, 이번 영화를 만나는 뿌리가 됐다”는 이영애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역할을 더 입체적으로 느끼며 공감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8년간 엄마로 살면서 쌓은 감정이 이번 영화에 어떻게 담길지 스스로도 “많이 궁금하다”며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될 영화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이영애는 나라로 떨어진 엄마가 진실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그리며 배우 유재명과 대척점에 선다.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유재명은 “촬영장에 이영애 선배가 등장하면 현장의 기운 자체가 달라졌다”며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강한 힘, 상대 배우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의 에너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1박 2일’ 복귀 때문에... KBS 예능 판짜기 힘들네

‘슈퍼맨이...’ ‘개콘’ 연쇄이동 불가피

KBS가 ‘1박2일’을 다시 방송키로 하면서 대대적인 주말 예능프로그램 새 판짜기에 돌입한다. 기존 방송시간대인 일요일 오후 6시대를 선택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KBS는 12월 초부터 ‘1박2일’ 시즌4를 종전대로 일요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시간대 방송 중인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일요일 밤 9시 15분 ‘개그콘서트’ 자리로 이동한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2013년 첫 방송 이후 10%대 중후반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탄탄한 고정 시청층을 확보해 온 만큼 방송 시간 변경에 따른 타격이 없을 거라는 방송사 판단이 작용했다. 동 시간대 1위인 SBS ‘미운 우리 새끼’와도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는 방송사 측의 자신감도 컸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으로 ‘개그콘서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대표적인 공개 개그프로그램이라는 자부심에도 지난해 이후 저조한 시청률로 고전해온 상황에 방송 시간대 변경은 그리 반가울 수 없다. KBS는 주말극이 끝난 뒤 ‘개그콘서트’로 이어지는 ‘습관성 시청 패턴’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으로 현재 ‘배틀 트립’이 방영 중인 토요일 밤 9시대를 선택지 중 하나로 놓고 있다.

1984년 이후 36년 동안 이어온 ‘연예가중계’도 폐지한다. KBS는 12월 초까지 이를 방영하고 막을 내리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연예정보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훈희 KBS 제작2본부장은 4일 “금~일요일 예능프로그램 편성이 대대적으로 바뀐다”며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편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수지·아이유 소주병 못 본다”...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

복지부, 주류용기 관련 규정 수정
“아이들에게 영향·소비 조장 우려”



수지

“술병에 붙은 연예인 사진 떼다.” 보건복지부가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4일 밝혀 이목이 쏠린다. 관련 움직임에 주류업계는 물론 연예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 주류 광고 기준을 고쳐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등을 금지할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보통 소주병 병목이나 뒷면에 부착된 연예인 모델 사진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주류·광고업계와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야 해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이들과 청소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어 최소한 술병 용기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주류업계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주 브랜드 ‘참이슬’의 하이트진로 전신내 과장은 4일 “소비자들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소주병 라벨에 연예인 모델 이미지를 인쇄해 시판해왔지만 판매량에 직결되는 요인은 아니다”면서 “작년에는 ‘소방관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다른 이미지를 넣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등을 내놓는 롯데주류의 김남윤 대리도 “주류용기에 연예인 모델을 인쇄한 것은 마케팅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관련 시행령이 바뀌면 디자인을 바꾸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리, 김태희, 수지,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탓에 ‘소주 모델=당대 최고 톱스타’라는 인식이 강한 연예계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낸다. 한 연예관계자는 “많은 연예인이 주류 광고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향후 아예 연예인의 주류모델 기용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과거 한 소주 브랜드의 모델로 나선 연예인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연예인 모델이 마치 음주를 부추긴다는 식의 반응이 있어 마음이 불편했다”며 “시행령 개정 의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획 점검 | 영화계가 바라보는 ‘평점 테러’ (중)

적지 않은 영화에 대한 ‘평점 테러’의 피해가 심각하다. 영화 개봉 전, 이를 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혐오와 공격을 더해 10점 만점에 1점을 부과하며 일부러 점수를 낮추는 행위가. 포털 사이트 영화 게시판이 공격의 주요 무대다. 최근작 ‘82년생 김지영’ 역시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평점 테러’가 최근 더욱 광범위하게 자행되면서 영화계 안팎에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절실하다. 3회에 걸쳐 평점 테러의 피해를 짚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입소문 바로미터 ‘평점’...결국 피해자는 관객

“포털 사이트 평점 영화 선택에 영향”
최근엔 실시간으로 SNS 댓글 확인

“영화의 힘이 단단하면 큰 영향이 없다. 하지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영화’에는 직격탄이다. 누군가 추천한다면 보겠단 관객도 부정적인 반응부터 접하면 망설이게 되니까.”

중견 영화 제작자의 말이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평점 테러’가 관객의 작품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영화관계자 대다수는 ‘평점 테러’가 영화에 무무형의 영향을 가한다는 걸 ‘체감’한다고 말한다. 일부 누리꾼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영화에 가하는 무차별 공격과 혐오 섞인 비하의 행위는 주로 포털사이트의 각 영화



영화 ‘82년생 김지영’

페이지 평점 코너를 통해 벌어진다. 최근 ‘실시간’ 기능까지 추가돼 해당 영화 제목을 검색하면 평점은 물론 기사의 모든 댓글, SNS 글까지 망라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기능은 정보 제공과 감상 공유, 의견 소통의 창구로써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정유미·공유 주연 ‘82년생 김지영’, 라미란·이성경의 ‘결갑스’ 등에 대한 조롱 섞인 공격도 여기서 이뤄졌다. 두 영화 모두 작품 개봉 전 ‘평점 테러’ 피해를 입었다. 그 속에서도 영화의 완성도로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은 있다. 4일 현재까지 누적

250만 명을 동원한 ‘82년생 김지영’을 비롯해 1000만 관객에 성공한 ‘변호인’, 올해 3월 ‘여성 우월주의’라는 일부 지적 속에 ‘평점 테러’에 노출됐지만 580만 관객을 모은 ‘캡틴 마블’ 등이다.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강동영 팀장은 “포털사이트 평점은 영화 정보를 찾을 때 대중이 가장 손쉽게 거치는 과정 이기에 중요하다”며 “특히 개봉 이후 매겨지는 평점은 영화의 재미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관객이 유심히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입소문’이 영화 흥행을 판가름할 정도로, 주변에서 재미있다고 추천하는 영화를 찾아보는 심리가 강한 한국 관객의 특성에 ‘평점’은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관객 솔림현상이 큰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평점은 선택에 영향을 준다”며 “지금처럼 유행에 가까운 폭력적인 평점 테러의 피해자는 결국 관객”이라고 지적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BTS 정국 교통사고...음주운전은 아냐



BTS 정국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의 정국(전정국·22)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정국은 지난달 용산구 한 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정국과 택시기사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정국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면서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으며,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